



“내일도, 내년에도, 뛰고 싶다”

추신수, 미국 현지 매체와 인터뷰서 내년 계획 화두 “2년 정도 더 뛰고 싶어... 한국에서 야구하는 꿈도”

“글쎄요,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추신수(38·텍사스 레인저스)는 27일(한국시간) 미국 현지 매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2021년 계획’이 화두에 오르자, 크게 웃으며 답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심경이 담긴 듯했다.

이날 추신수는 ‘내일’과 ‘2021년’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 모든 질문에 추신수는 “뛰고 싶다”고 답했다. 추신수는 “이렇게 시즌을 끝내고 싶지 않다. (팀의 2020 시즌 마지막 경기)가 열리는 28일 경기에 뛰고자 지금도 노력 중이다. 정말 뛰고 싶다”고 말했다.

2020년 메이저리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팀당 60경기만 치른다.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한 텍사스는 28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를 치르면 2020년 일정이 끝난다.

“텍사스와의 계약 마지막 해”라는 점이 추신수에게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라도 꼭 뛰어야 한다”는 동기 부여를 안긴다.

추신수는 “오늘도, 내일도 포기하지 않고 복귀전을 준비할 것이다”라며 “물론 내일(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 뛰지 못한다고 해도, 후회는 하지 않는다. 다만 나는 한 타석이라도 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있다”고 했다.

추신수는 2013년 말 자유계약선수(FA)로 텍사스와 7년간 1억3000만 달러에 계약했다. 올해 그 계약이 끝난다. 추신수는 “7년 동안 텍사스, 한 팀에서 뛰는 건 내게 큰 행운이었다. 트레이드 얘기가 자주 나왔지만, 나는 여기에서 7년을 뛰었다”며 “텍사스에서 좋은 동료와 코칭스태프를 만났다. 텍사스에서 7년 동안 후회 없이 뛰었다”고 일곱 시즌을 돌아봤다.

후회 없이 뛰었지만, 이대로 그라운드를 떠나고 싶지는 않다.

추신수는 “2년 정도 더 뛰고 싶다.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그 정도는 더

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시즌에 생각이 바뀔 수는 있지만, 일단은 평소처럼(훈련하며) 비시즌을 보낼 생각이다. 올해처럼 60경기를 치르는 게 아닌, 162경기를 정상적으로 치르는 시즌을 끝으로, 내 커리어를 마감하고 싶다”라고 현역 연장 의지를 드러냈다.

추신수는 ‘한국행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받았다.

그는 “KBO리그에서 뛰는 게, 내 꿈 중 하나다. 특히 내 고향 팀이고, 내 외삼촌(박정태)이 오랫동안 2루수로 활약한 롯데 자이언츠에서 뛰는 꿈을 꾸기도 했다. 당연히 롯데에서 뛰면 행복할 것이다”라며 “한국행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내게는 가족도 있다. KBO리그에서 뛰는 건 좋은 기억이 생겼지만,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게 더 현실적인 것 같다”고 했다.

추신수의 현실적인 2021년 목표는 메이저리그에서 뛰며 포스트시즌을 치르는 것이다. 추신수는 “나는 14년을 뛰는 동안 포스트시즌에 두 차례만 나갔다. 내 커리어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주유나이티드 ‘K리그2 전구단 승리’ 도전

오늘 전남드래곤즈와 경기 올 시즌 현재 1무 1패 기록 이기면 모든 팀 상대 승리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가 전남드래곤즈를 상대로 ‘K리그2 전구단 승리’를 노린다.

제주는 28일 오후 7시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2 2020 21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전남과 격돌한다. 제주는 최근 9경기 연속 무패(6승 3무)와 함께 12승 5무 3패 승점 41점으로 리그 선두를 질

주하고 있다.

이날 경기에서 전남에 승리할 경우 K리그2 전구단 상대 승리를 거두게 된다. 앞서 5월 16일(원정·0-1패)과 8월 1일(홈·1-1 무)에 전남과 두 차례 맞대결을 펼쳤지만 승수황기에 아쉽게 실패했다.

전남은 리그 최소 실점 1위(16골)를 기록하고 있지만 제주의 화력은 더욱 뜨겁다. 최근 6경기에서 17골. 주민규의 4경기 연속골, 이동률의 5경기 연속 공격포인트(3골·3도움), 안현범의 2경기 연속골 등 다양한 공격 옵션이 불을 뿜고 있다. 수비도 안정적이다. 최근 2경기 연

속 무실점 승리를 거두고 있으며 리그 최소 실점 2위(19골)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좌우 윙백인 정우재와 안현범이 폭넓은 활약을 가져가며 공수에 걸쳐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주민규와 함께 K리그2 20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된 안현범은 “요즘엔 어느 팀을 만나도 질 것 같지 않다. 남은 7경기를 모두 이기고 승격하고 싶다”라고 전의를 불태웠다.

한편 제주는 7경기를 남긴 K리그2에서 승점 41점으로 한 경기를 더 치른 수원FC(42점)에 이어 2위에 위치해 있다.

송은병기자 seb119@ihalla.com

황희찬·이강인 나란히 리그 후반전 교체 출전

독일프로축구 라이프치히의 황희찬(24)이 분데스리가 정규리그 2경기 연속 교체 투입으로 출전 기회를 잡았다. 팀은 레버쿠젠 원정에서 승점 1을 챙기는 데 만족해야 했다.

황희찬은 26일(한국시간)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아레나에서 열린 레버쿠젠과의 2020-2021 분데스리가 2라운드 원정 경기를 벤치에서 시작한 뒤 후반전을 시작할 때 미드필더 케빈 캄플 대신 그라운드를 밟아 끝까지 뛰었다.

정규리그 첫 공격 포인트 작성은 불발됐으나 후반 24분부터 뛰던 20일 마인츠와의 분데스리가 개막전보다는 출전 시간을 늘렸다.

이강인(19)이 후반 교체 출전한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라리가) 발렌시아가 이븐 시즌 1부 승격을 위한 우에스카와 무승부를 거뒀다.



황희찬



이강인

발렌시아는 26일(한국시간) 스페인 발렌시아의 메스타야 경기장에서 열린 우에스카와의 2020-2021 라리가 3라운드 홈 경기에서 1-1로 비겼다.

앞서 1, 2라운드에서 선발 출전했던 이강인은 이날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후반 40분 곤살로 게데스

와 교체 투입돼 경기가 끝날 때까지 약 10분간 그라운드를 누볐지만, 공격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다.

시즌 개막 후 3경기에서 1승 1무 1패를 올린 발렌시아는 승점 4를 기록했고, 우에스카는 2무 1패로 승점 2가 됐다. 연합뉴스

LA 레이커스, 10년 만에 챔피언결정전 진출

미국프로농구(NBA) LA 레이커스가 ‘킹’ 르브론 제임스의 ‘트리플 더블’ 활약을 앞세워 덴버 너기츠를 꺾고 10년 만에 챔피언결정전 진출에 성공했다.

레이커스는 27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어드벤처스 아레나에서 열린 2019-2020 NBA 플레이오프 서부 콘퍼런스 결승(7전

4승제) 5차전에서 덴버를 117-107로 물리쳤다.

시리즈 4승 1패를 기록한 LA 레이커스는 NBA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차지했던 2009-2010시즌 이후 10년 만에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해 통산 17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보스턴 셀틱스와 마이애미 히트가 맞대결을 펼치는 동부 콘퍼런스 결

승전 승자와 NBA 최강자 자리를 놓고 맞붙는다.

플레이오프 1, 2라운드에서 유타 재즈와 LA 클리퍼스를 모두 1승 3패 후 3연승으로 제압했던 ‘역전의 명수’ 덴버는 콘퍼런스 결승에서는 대역전을 이어가지 못했다.

이날 레이커스는 제임스가 38득점 16리바운드 10어시스트로 트리플 더블을 달성했고, 앤서니 데이비스가 27득점 5리바운드 3어시스트로 활약했다. 연합뉴스



키움 변상권, 프로 첫 출전 신고 27일 잠실야구장 프로야구 키움-두산 경기 8회초 2사 1, 2루. 키움 변상권이 출전 후 디그아웃에서 축하 받고 있다. 연합뉴스

Table with 5 columns: KBS1, KBS2, MBC, JIBS/SBS, EBS1. It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across different channels.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A horoscope section titled '오늘의 운세 28일' (Today's Fortune 28th). It features a grid of zodiac signs with corresponding fortunes and advice for each sign.